



2면

키르기스스탄 찾아 전북 문화 알리다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음 5월 5일)

제328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김관영 전북도지사(사진 왼쪽)는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수도권 집중, 지방인구감소와 전북도의 대응'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통해 인구감소 극복”

김관영 도지사,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 미래' 포럼 참석

“지방시대 구현 위해 공공기관 2단계 이전 조기 실현
지역 활력 높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필요” 피력

“외국인 유입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인구 감소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가 지방인구 감소와 전라북도 대응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해 전북의 현황과 전북도의 대응책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김 지사는 21일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란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수도권 집중, 지방인구감소와 전라북도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북의 인구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기회의 땅,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도전과 기회의 전북, 함께 성공 프로젝트를 위한 전북형 청년수당, 전북청년 함께 두배작금, 청년활력수당 등 전북의 청년정책도 소개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 사업,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한 스마트팜 조성, △전라북도 시군 대표 관광지 조성, △한 문화 관광 여행체합 1번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인 전북특별자치도, △

기업친화 정책, △행정과 교육 협치를 통한 인재 양성 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한 인구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도 제안했다. 외국인 유입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확대 및 장기적으로는 인구의 10% 범위 내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고리를 끊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 2단계 이전 조기 실현 촉구, 지역활력을 높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관영 지사는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해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 새만금 사업, 농생명산업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내년 출범 전북특자도 도민공감대 형성 '가속'

전북도, 27일부터 '찾아가는 권역별 시·군 설명회'
특자도 개정법안·추진상황·명칭변경 정비 등 공유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내실 있는 개정법안 마련과 대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전북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3월 권역별 시·군 설명회 5월 14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 시민단체연대회의 간담회에 이어 오는 6월 말부터 전북연구원과 함께 지역주민과 공무원 대상으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7일 익산시를 시작으로 7월 6일 부안군까지 총 8회에 걸쳐 권역별로 순회하며 진행된다. 도는 이 자리에서 전북특별법 개정법안 설명과 함께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일정을 공유하고,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사항, 질문·답변 등을 통해 도민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확산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도에서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총 232개 조항으로 이뤄진 전부개정법안의 법안체계, 개괄적 법안 조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할 특례가 반영된 194개 조항과 해당 시·군과 밀접한 특례 조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이와 함께 행정구역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른 종합정비 계획, 정비 대상(업무시스템·웹사이

트·표지판·공인·공부 등)을 안내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의 이행사항에 대해 협조도 구할 계획이다. 특별자치도민으로서 일체감을 높이고 출범 분위기 고조를 위해 개최될 시·군별 화합행사, 전야제 및 출범식 행사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고 각계각층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도민 설명회 및 정책 토론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는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며, “이번 설명회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바다의 반도체 '김' 특화 방안 마련

전북도, 김 산업 집적화단지 조성·발전전략 세미나

전북도는 2023년 농생명산업 포럼 수산협력분과 정책세미나를 21일 전북연구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바다의 반도체 '김' 산업 특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북도 김 산업 집적화단지 조성과 발전전략을 주제로 진행했다.

세미나의 발제는 장호근 교수(부경대학교)와 이다정 연구원(풀무원기술원)이 맡았다. 이들은 각각 전라북도 김 산업 현황과 육성방향, 푸드테크를 통한 김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장호근 교수는 국내 김 산업 현황 및 전라북도 김 산업 분석을 통해 도내 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생산기반·육성 및 6차 산업화를 제시했다.

이다정 연구원(풀무원기술원)은 김 양식의 문제점인 해수 온도 상승, 자연재해, 영양염 고갈로 인한 물김 생산량과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로 최적의 양식환경을 조성하고, 영양 및 품질이 뛰어난 친환경

고품질의 김을 연중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해 내수 소비 및 수출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형섭 교수(군산대학교)가 좌장을 맡았다. 이성복 김생산 어민연합회장 최성재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 이상철 부경대학교 교수, 전병권 전라북도 수산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김 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와 전라북도의 김 산업의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김 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해 생산·가공·수출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김 산업은 도내 신선농산물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이나 주로 마른김 형태로 수출되고 있어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주)풀무원과 육상양식 기술 공동개발 및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중단지에 다양한 김 가공업체 유치로 도내 김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공사 착공

군산내항이 재해에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침수 등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공사'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외곽 및 방재시설을 보강하는 '재해취약지 구 정비계획(2011~2030년)'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정비사업은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지난 3월 공고를 통해 선정된 우담건설(주) 등 3개 사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는다. 이번 공사에서는 2025년까지 총 335억원을 투입해 동백대교 남단부터 총 1.5km 길이의 구간에 △투명 방호벽 △승강식 방호벽 △차수관 등 다양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이 중 군산내항 호안 구간은 석축을 원형 복구하면서 침수방지기능을 갖춘 방재언덕을 조성해 약 1만,500㎡의 상부 부지를 침수공원으로 만들고 일부 구간에는 보행 전망데크를 마련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군산내항은 근대문화유산과 향만이 공존하는 지역명소로, 이번 공사를 통해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